계간 미주문학

2007
가을호

미주한국문인협회

계간 미주문학

2007년 9월 10일 발행 · 계간 / 미주한국문인협회 1982년 9월 2일 창립

2007/통권 40호
계 간 / 가을호

Korean Literature of America

■ 특집 | /2007년 여름 문학캠프 ■

11 고 원 은유와 다의성(多義性)
16 하길남 수필의 일상성과 문학성
36 송상옥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한 몇 가지 전제

■ 특별기고 ■

54 임헌영 노마드 시대의 한국문학

시/시조

70 강화식 기다림의 끝
71 김경용 이역(異域)의 땅
73 김내수 등정(登頂)의 투혼
75 김성수 능수버들
77 김인자 후회
79 박경호 복사용지에는
81 배송이 파르망티에를 생각하며
83 백선영 클릭Click 2
84 복영미 도시의 풀벌레
86 송정룡 나는 매일 손녀를 뵈러 간다
88 신덕재 고향백담(故鄕白談)
94 신 소피아 가을 여심(女心)
96 요봉희 그녀의 방엔 밀물과 썰물이 함께 흐른다
97 윤석훈 전신주
99 윤종길 떡을 굽는 아이들
100 이성열 절벽
101 장효정 막고굴 속의 자유
103 정국희 옷장을 정리하며
105 정문선 건반과의 이별
107 정어빙 비늘
109 정용진 귀거래사(歸去來辭)
116 정찬열 누가 시인일까
118 정해정 엘캐피탄 캐년의 밤
120 조영철 헛것
122 조옥동 한 점 구름
124 조주현 오늘을 사는 별들
126 차신재 동굴 속에서
128 추은진 가을 문턱
129 한만희 꽃망울

수필

131 강정실 아비의 초상(肖像)
137 고대진 절규
140 박봉진 연서 안의 동봉 편지
145 성민희 마음 앉을 자리

권두언 / **사랑하고 싶은 가을** 김동찬 6
계간 〈미주문학〉 신인상 작품모집 표2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4
문협소식 344
편집 후기 / 판권 348
표지 사진 / 강정실(수필가, 사진작가) 표지

수필
149 정순옥 나이아가라 폭포
153 정옥희 유월을 보내며
158 지희선 달빛 사랑
162 최미자 너와 나의 눈물

소설
167 김영강 젊은 시어머니
193 김영문 타인의 축제
235 윤금숙 잿빛 노을

아동문학
242 동화/홍영순 고추잠자리야 미안해
251 동시/최성근 촛불

연재 평론 / 미주 한인 소설 연구(10)
253 **박영호** 1980년대의 미주 한인 국문 소설

작품평
295 시 정호승 시는 인간을 위안해 줍니다
303 소설 황충상 독자는 다 안다
309 수필 하길남 변별적 소재 선택

■ 특집 II / 미주문단 순례 - 오레곤 문학회 ■
317 오정방 오레곤 문학회의 탄생과 활동
320 오레곤 문학회 연혁
322 아름다운 오레곤과 10대 관광명소
325 강성재 귀향
328 권태성 이렇게 하루를 살고 싶다
330 김선경 연인들이여
332 김정아 딸기 밭에서
333 미셸 염 모정(母情)
334 신덕자 시는 푸른 바람에 실려와
336 오영근 기다림
338 오정방 어머니의 허리
339 정용철 함성(喊聲)
341 주정은 언제쯤이면
342 태희영 세 송이 수국꽃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계간 〈미주문학〉은 우리의 자산
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미주문학〉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 발표의 장입니다. 〈미주문학〉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구고,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

아울러 계간 〈미주문학〉이 회원들끼리만,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눠보는 회원지,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계간 〈미주문학〉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네 번(호)의, 또는 여덟 번(호)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미주문학〉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시다.

계간 〈미주문학〉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미주문학〉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